



[산업]
삼성 AI 포럼
세계적 석학 한곳에
삼성서초사옥 AI 메카로
04



Life

[공기업]
러 가스포럼과
北 경유 가스관
건설 추진
L6



조선시대 골목길 눈 앞에... 종로 600년 역사 깨어나다

‘공평동 현장박물관’ 개관
종로 센트로폴리스 지하1층 조성
임진왜란때 소실된 건축물 복원
골목길·생활 유물 등 볼 수 있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서 열린 개관 간담회에 앞서 관계자가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센트로폴리스 빌딩 지하에 위치한 전시관은 조선시대 건물지와 도로, 유물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 한복판에 임진왜란 때 소실된 목조건축물과 600년 전 한양 사람들이 지나다녔던 골목길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조선 한양부터 근대 경성에서 이르는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평동 매장문화재를 현장 박물관으로 조성해 개관했다고 12일 밝혔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건물 지하 1층에 연면적 3817㎡ 규모로 만들어졌다. 시는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굴된 108개 동 건물지 일부와 골목길 등 유구, 1000여 점이 넘는 생활유물을 보존해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을 세웠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개발과 공존을 유도한 민간 협력 보존형 정비사업 모델인 ‘공평동 물(매장문화재 전면 보존의 전제와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다.

시는 2015년 사대문 안 공평동 정비사

업 중 대규모로 발굴된 도로와 골목, 집터 등 매장문화재를 원 위치에 보존하기 위해 민간사업시행자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 손실을 보전해줬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용적률 99%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총 1199% 용적률로 건물 두 동을 26층으로 건축했다.

시는 이러한 공평동 물(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리 원칙으로 삼을 계획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은 크기가 다른 가옥 3채(전동 큰 집, 골목길 모자 집, 이문안길 작은 집)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복원해 한양 집의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학술 자문을 맡은 전봉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 6칸, 18칸, 30칸 집 중 가장 작은 이문안길 집을 실물 크기로 복원했다”며 “16세기 당시 있을법한 서울 시내 집들의 규모를 고르게 배열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 이전의 것이 발견되면 무조건 국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16세기 건물은 희귀하다. 임진왜란 때 목조 건축물들이 전부 파괴됐기 때문”이라며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16세기 건물로 인식된 5~6채 집을 참고해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세 집 모두 온돌방은 한 칸 밖에 없었다”며 “당시에 온돌이 매우 귀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이다”고 덧붙였다.

화’ ▲도시유적 아카이브 ‘도시유적 발굴지도’, 총 4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개발과 보존의 상생 구역에서는 공평동 물, 유구 배치 기본 방향을 소개한다. 발굴현장 관련자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견평방 구역에서는 시전, 궁가, 관청 등 다양한 시설과 계층이 혼재한 견평방의 형성과정과 시전 배후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근대 공평동 구역에서는 공평동 변화상을 지역 기반으로 활동했던 건축가 박길룡과 항일여성운동단체인 근우회의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도시유적 아카이브 구역에서는 사대문 안 서울 도심의 도시유적 발굴조사 성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밖에도 박물관에는 당시 발굴된 유물 1000여 점과 인근 청진동에서 발견된 유물 20점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청동으로 만든 삼족화로, 중국 명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매병 조각, 조선 전기 무신 구수영의 패찰 등을 통해 당시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의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관람료는 무료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은 휴관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오버투어리즘’ 해결방안 찾는다

‘서울 공정관광 국제포럼’ 개최
한옥마을 등 과잉관광 대안 모색



서울시는 오는 18일 신라호텔에서 ‘모두가 행복한 관광 : 미래공정관광’을 주제로 ‘2018 서울 공정관광 국제포럼’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포럼은 북촌한옥마을, 세종마을 등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버투어리즘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방문객이 관광지에 몰려 지역 주민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이다.

포럼에는 바르셀로나 관광국장, 베니스 자치구 의장, 암스테르담 관광청 마케팅전략실장, 국내외 전문가,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행복한 공정관광의 미래에 대한 기초연설과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나효우 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 조직위원장이 ‘경쟁력 있는 서울관광을 위한 공정관광의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 과잉관광 현상을 겪으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인 주요 도

시 바르셀로나, 베니스 대표가 패널 토론자로 초청됐다.

공정관광 기획세션에서는 국내외 관광업계 관계자, 마을여행 단체 및 기관, 시와 자치구 담당자 99명이 3그룹으로 나누어 토론한다. 이들은 ‘관광의 공공성을 중심에 둔 도시관광 정책’, ‘삶을 위한 관광의 길 찾기’, ‘관광의 분산과 공정관광 정책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토의한다. 토론 후 시와 자치구 담당부서에 정책제안을 전달한다.

포럼과 연계해 진행되는 공정관광 주간(17~29일) 동안 북촌마을안내소에는 ‘모두가 행복한 관광이야기’를 주제로 특별전시가 열린다. 북촌주민의 정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관광 글로벌 캠페인이 소개된다. /김현정 기자



민족 대명절 추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 구매하고 있다. /뉴스1

“추석 차례상 전통시장서” 마트보다 저렴

수요 많은 36개 품목 조사 결과
전통시장 19만원, 대형마트 22만원

비용은 17만9975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7%, 1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추석 차례상 재료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대형마트보다 13% 저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12일 시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락시장 내 가락물 등 61곳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사는 단출해지고 있는 차례상 차림 추세를 반영해 수요가 많은 주요 36개 품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통시장 구매 비용은 19만2676원으로 대형마트 22만1285원보다 13% 저렴했다.

전통시장은 무, 배추, 대파, 시금치 등 일반 채소류 가격 상승폭이 대형마트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대형마트는 약과, 다식, 부침가루 등 가공식품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락시장에 있는 가락물에서의 구매

이번 추석 농수축산물 가격 전망(가락시장 기준)을 보면, 사과는 불철 냉해 및 낙과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배는 냉해 피해로 인한 물량 감소와 태풍 ‘솔릭’으로 인한 조기 수확으로 특품 및 대과가 감소해 강세가 전망된다.

배추와 무는 추석 성수기에 맞춰 집중 출하되면서 물량은 양호하지만, 소비가 활발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태와 명태포는 예년보다 수입량이 줄고, 물오징어는 어획량 증가가 크지 않아 강세가 전망된다.

국내산 소고기는 전년 대비 출하량 감소와 명절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산 돼지고기는 전년 대비 출하량 증가가 크지 않아 약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김현정 기자

‘부동산 시장 교란’ 60명 무더기 적발

청약통장·분양권 불법거래 등

상시 단속·수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서울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60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1차 중간 수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을 부여받고,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꾸린 뒤 이룬 첫 결실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에 대한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브로커는 전단지,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판매자를 모집했다. 주택가 주변 전단지 등에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붙여 광고했다. 이들은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의 청약조건을 보고 통장을 거래했다.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의 통장을 수백~수천만원에 사들였다.

청약통장을 구입한 후 당첨된 아파트에는 고액의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브로커들은 사무실 없이 카페 등에서 거래를 시도했다.

회원이 30만명에 달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 운영자 A씨는 회원들에게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분양권을 당첨 받을 때까지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일대일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알선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식으로 ‘수수료 나눠먹기’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9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현정 기자